

‘지방차(地方差)’와 ‘고립(孤立)한 멘델 집단(Mendel集團)’: 두 ‘중심부’ 과학과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1932-1964

현재환†

1. 서론

최근 1950-1960년대 한국 과학자들의 과학 활동과 일본 식민 과학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성 사이에 대한 연구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¹ 일례로 김태호는 리승기의 비날론 연구를 사례로 삼아 북한 정부와 리승기가 식민지의 지적, 물질적 유산을 전유하는 과정을 탐구했으며, 김성원은 곤충학자 조복성을, 선유정은 임학자 현신규를 사례로 삼아 해방 후 남한 과학계 확립에 일조했던 이들의 학문적 토대가 된 식민지기의 교육과 연구 경험을 자세하게 살폈다.² 이처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일 전국역사학대회 과학사부 ‘국가 기술과 과학 기술 의료사 서술·의료사 서술’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학술 대회에서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임종태, 박범순, 김근배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수정·보완 단계에서 초고를 면밀히 검토해주신 정준영, 김태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정원교, 원주영, 박지영 학형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 논문에 대해 의미 있는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sisypus.gg@gmail.com

1 이 같은 과학사학계의 관심은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의 관점에서 해방 후 남한 사회의 식민지 유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사학계의 보다 넓은 흐름과 조응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편, 도면희 옮김,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출판사, 2007). 김근배를 비롯한 과학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 저술 작업에 참여하여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병천, 정근식 편,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2』 (책세상, 2012).

2 김태호, “리승기의 북한에서의 ‘비날론’ 연구와 공업화: 식민지 유산의 전유 과정을 중심으로

럼 식민지 유제와의 연속성을 검토하는 연구들과 함께, 해방 이후 미국 유학을 통해 학습하고 연결된 새로운 국제 과학의 영향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학문 세대들이 ‘한국적 과학’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추적하는 작업들 또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신미영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유학을 다녀온 바이러스 학자 이호왕이 그의 초기 경력 가운데 미국과 다른 한국의 상황에서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검토했다. 선유정은 임학자 현신규가 미국 연수를 통해 임목 육종학을 익히고 돌아와 리기테다 교잡 연구를 통해 세계 임학의 새로운 추세를 한국 임학자들이 쫓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들과 함께 김근배는 1960년대를 파이클립을 포함한 미국에서 유학한 젊은 과학 세대가 대학의 기초 연구 분야에 주를 이루던 일본 강점기에 교육 받은 옛 과학 세대를 대체한 시기로 이해했다.³

이 연구들은 모두 1950-1960년대 한국 과학자들의 활동을 살필 때 일본 식민지 과학의 영향만을 살피거나, 반대로 냉전 시대 도래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 과학의 영향만을 고립적으로 다룬다.⁴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해방 이후 196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 과학계를 이끈 과학자 집단들이 일본 식민 과학과 미국 국제 과학 양측 모두의 영향 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판(Fa-ti Fan)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근현대 과학사의 연구 경향과 나아갈 방향을 개괄하면서 언급했듯이, 일본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던 한국과 대만과 같은 국가들의 과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자유주

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3권 2호 (2001), 111-132쪽; 김성원, “식민지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2호 (2008), 353-381쪽; 선유정, “일제 강점기 현신규의 임학자로서의 성장과 그 의미”, 『한국인물사연구』 21호 (2014), 505-544쪽.

3 신미영, “이호왕의 일본뇌염바이러스 연구: ‘새로운’ 연구 환경에 적응하기”, 『한국과학사학회지』 34권 3호 (2012), 405-428쪽; 선유정, “현신규의 리기테다소나무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7권 2호 (2005), 27-60쪽;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호 (2008), 236-261쪽.

4 예외적인 사례로 디모이아(John DiMoia)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화학자 이태규를 중심으로 1930년대-1970년대 사이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과 미국 유타 대학(University of Utah)에서의 근무, 그리고 한국으로의 귀환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국 물리화학자 화학자 집단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했다. John DiMoia, “Transnational Scientific Networks and the Research University: The Making of a South Korean Community at the University of Utah, 1948-1970,”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6:1 (2012), pp. 17-40.

의 진영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일본 식민 과학의 유산과 새로이 등장한 국제 과학 사이의 긴장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⁵ 최근 근대 과학이 보편적(universal)이고 단일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적(local) 대상이라는 이해가 일반화되고, 일본 제국의 과학이 단일한 구미 근대 과학의 ‘주변부’ 과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변 식민 지역의 과학자들에게 또 하나의 ‘중심부’ 과학이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해방 전후사를 살아간 한국인 과학자들은 사실 두 ‘중심부’ 과학을 대면하고, ‘주변부’ 과학자로서 이 두 과학 모두에 조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⁶

이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자면, 해부학자 나세진(羅世振, 1908-1984)과 그의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은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다. 나세진은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의학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해방 후에는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을 이끌었고,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의학의 경험도 가진 인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일본 제국 과학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해 나세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들이 내려진 상태라는 점이다. 만약 화학자 이태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과학에 철저히 적응하고

⁵ Fa-ti Fan, “Redrawing the Map: Science in Twentieth-Century China,” *Isis* 98:3 (2007), pp. 524-538, 특히 p. 532.

⁶ 근대 과학을 보편 과학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음을 참고. Andrew Cunningham and Perry Williams, “De-Centering the ‘Big Picture’: The Origins of Modern Science and the Modern Origins of Science,”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26:4 (1993), pp. 407-432. 식민지 경험을 가진 지역들의 과학사 연구들과 관련한 과학 지식의 국소성, 중심부와 주변부 등의 문제 제기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 Roy MacLeod, “Introduction,” *Osiris* 15 (2000), pp. 1-13; David Wade Chambers and Richard Gillespie, “Locality in the History of Science: Colonial Science, Technoscience, and Indigenous Knowledge,” *Osiris* 15 (2000), pp. 221-240; Kapil Raj, “Beyond Postcolonialism ... and Postpositivism: Circulation and the Global History of Science,” *Isis* 104:2 (2013), pp. 337-347. 일본 제국의 과학을 단순히 서구 과학의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중심부’ 과학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음의 논평과 사례 연구들을 참고. Gregory Clancey, “Japanese Colonialism and Its Sciences: a Commentary,”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2 (2007), pp. 205-211; 미야가와 타쿠야, “제국 일본의 기상관 측망 구축 : 청일, 러일전쟁과 식민지 기상사업, 1894-1930”, 『역사와 문화』 25호 (2013), 54-90쪽;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 1910-1945: 조일 연구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학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성공한 인물로 그려졌다면, 체질 인류학자 나세진은 일본 제국의 식민 과학을 그대로 반복한 인물로 치부되고 비판받아 왔다. 북한의 체질 인류학자 장우진은 그를 ‘일제 어용학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가 자신의 한민족 기원론을 위해 사용한 경성제국대학의 데이터는 일제 어용학자들이 일선 동조론(日鮮同祖論)을 정당화하기 위해 완전히 날조한 자료들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다.⁷ 한국 민족주의 고고학이 일본 제국 연구자들의 식민지 인종주의를 담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배형일은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연구를 정확히 이러한 식민지 인종주의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례로 읽었다.⁸ 박순영 역시 나세진의 연구를 해방 후 체질 인류학이 일제 강점기의 학문적 방법론, 자료, 해석 등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다루었다.⁹ 이들에게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과 그를 통해 도출된 한민족 혼합기원론은 시대착오적인 일제의 편향된 과학의 유산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은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연구의 ‘과학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1950-1960년대 한국인 과학자들의 과학 활동과 일제 강점기 식민 과학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이해에 기여하려 시도한다. 이 글은 동시에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을 일제 강점기 식민지 과학의 반복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한다. 이는 나세진이 1960년대에 펴내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나 식민지 과학의 유제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체질 인류학 연구를 수행했다는 순진한 주장이 아니다. 다만 필자는 나세진의 한민족 혼합기원론이 한국에서 일본 제국의 체질 인류학과 해방 이후 미국 체질 인류학을 어떻게 수렴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가 이 두 전통을 분리 불가능하게 뒤섞은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나세진은 한민족이 ‘혼혈(混血)’의 결과로 이루어진 ‘단일 집단(單一集團)’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필자는 이러한 그의 주장에 빚대 그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국 일본과 미국 체질 인류학의 ‘혼종(hybrid)’의 결과로 이루어진 ‘혼종적 체질 인류학’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본 사례 연구는 과학 ‘중심부’의 전환이 일어나는 해방

7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1: 원시편』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9).

8 Hyung Il Pai,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9 박순영, “일제 식민통치하의 조선 체질 인류학이 남긴 학문적 과제와 서구 체질 인류학사로부터의 교훈”, 『비교문화연구』 10권 1호 (2004), 191-220쪽.

전후에 이러한 전환이 가져오는 긴장을 ‘주변부’ 과학자가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한 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나세진의 간단한 이력과 1964년 『한국문화사대계(韓國文化史大系)』에 실린 그의 연구를 소개한다.¹⁰ 이후 이 연구에 대한 비판적 반응들을 검토하면서, 기존 비판적 견해들을 따를 경우 풀리지 않는 난점들을 훑어본다. 그리고 이러한 난점들을 이해할 한 가지 방안으로 나세진 연구의 배경이 되는 ‘국제’ 체질 인류학 연구의 흐름을 살핀다. 여기에는 전전(戰前) 제국 일본의 체질 인류학 연구, 특히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활동(1930-1940년대)과 전후 미국 체질 인류학 연구의 연구 동향(1950-1960년대)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적 밀착들이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조립되었는지를 추적한다.

본론 전개에 앞서 이 글이 해방 후 나세진의 한민족 체질 인류학 논문 및 저서들을 묶어 살피지 않고 1964년 『한국문화사대계』에 실린 “한국 민족(韓國民族)의 체질 인류학적 연구(體質人類學的研究)”만을 활용하는 이유를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 논문과 1968년 나세진 회갑 기념 논문집에 다시 실린 판본, 그리고 1981년에 장신요와 공동 집필한 『한국인(韓國人)의 체질(體質)』을 대동소이한 것으로 다루었으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각 판본이 나세진의 시기마다 변화하는 사고가 반영되어 상이한 내용, 용어 사용, 해석들을 담고 있어 동일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968년 회갑 기념 논문집에 실린 판본은 1964년 판본과 달리 지방차(地方差)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줄고 “고립 유전질(孤立遺傳質) 풀”이란 단어가 영문 “Isolated Gene pool”과 병기하여 표시된다. 1981년에 출간한 공저와 1964년 및 1968년의 논문 또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임 직전인 1970년 초 전후에 나세진은 제주도민의 체질 인류학적 조사를 통해 중부 한국인과 다른 제주 ‘토착민(土着民)’의 남방 기원 탐색을 시도했는데, 이 내용은 1964년과 1968년 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¹¹ 더구나 1981년 장신요와의 공저는 비록 현재적 관점에서는 틀린 내용이더라도 인류 기원에 대한 당대의 고인류학 및 영장류학 연구 성과들 가운데 한민족의 체질 인류학 연구를 위치시키고, 체질 인류학 연구를 통해서는 한민족 기원의 도래기

10 羅世振,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 高麗大民族文化研究院 編, 『韓國文化史大系: 民族, 國家史』(高麗大學校出版部, 1964).

11 羅世振, “濟州人의 體質人類學的 調査”, 『大學新聞』, 1970. 9. 14, 2면.

를 결코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이전의 판본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더불어 이 공저는 경성제대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지방차’에 관한 언급 없이 해방 후 연구들은 모두 ‘응용적’ 연구일 뿐이므로 기원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방차’를 주된 이유로 삼았던 1964년 판본과 완전히 다른 설명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세 판본은 모두 구별되어 검토되어야 하므로, 이 글은 1964년 판본만을 탐구한다.

2. 나세진의 한민족 기원론과 비판들

나세진은 1908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1926년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했다.¹² 경성제대를 졸업한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에는 의학부 해부학교실 제1강좌에서 부수로 일했고, 해당 강좌를 맡고 있던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 1887-1966)의 지도하에 체질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했다.¹³ 1939년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 교수로 부임했지만 이후로도 나세진은 경성제대 해부학교실과 긴밀하게 교류했다. 1942년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해부학교실 3강좌 교수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 1896-1971)등과 함께 현지 조사를 나가 인체를 계측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지역 조선인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 논문을 출판했으며, 이는 1934년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이름으로 간행된 조선인에 관한 체질 인류학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¹⁴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연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해부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질 인류학 연구와 사회과학

12 나세진에 관한 이후의 개략적인 소개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백상호, “나세진”,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의학인물사』 (태학사, 2008), 129-135쪽.

13 경성제대 의학부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 연구에 관한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옥주,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 인류학 연구”, 『의사학』 17권 2호 (2008), 191-203쪽; 박순영,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조선인 신체에 대한 일제 체질 인류학자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2권 2호 (2006), 57-92쪽; 정준영, “경성제대 체질 인류학자들과 식민지 공간의 역사적 재구성: 사토 다케오와 이마무라 유타카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일본학연구소 제22차 워크숍, 2013년 4월 26일).

14 上田常吉, 鈴木清, 西木世振 等, “京畿道朝鮮人の體質人類學的研究”, 『人類學雜誌』 57 (1942), 4-10쪽.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질 인류학 연구가 서로 구별되는 다른 활동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이래 한국에는 두 개의 구별되는 체질 인류학 연구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해방 후 미국 인류학의 사분과(四分科) 체제 내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해 사회과학대 인류학과와 고고학과, 혹은 고고미술사학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체질 인류학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기부터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체질 인류학자들이다. 전자의 집단은 체질 인류학을 생물 인류학의 다른 말이자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와 변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는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대한해부학회 산하 대한체질인류학회는 체질 인류학을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여러 인간 집단들의 해부학적 특징들을 계측하여 그 체질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인체 측정학(anthropometry)”으로, “현대적인 개념으로서는 인간 유전학, 인간 적응력, 인종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간 생물학(human biology), 그리고 생물의 진화, 영장류학, 진화 유전학, 인간의 진화 등을 연구하는 진화 생물학(evolutionary biology)”으로 정의한다. 나세진이 일제 강점기에 학습하고 해방 이후 전개했던 조선인(해방 후에는 한민족)에 관한 체질 인류학 연구는 대한체질인류학회의 정의에서 고전적인 개념, 해부학적 특징들을 비교하여 인종 분류를 수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¹⁵

해방 직후 나세진은 스승들이 떠나간 경성대학 의학부 해부학교실 교수 좌를 맡았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의학부 교수가 되었다. 1947년에는 조선해부학회(朝鮮解剖學會)(후일 대한해부학회[大韓解剖學會]로 개명)를 창립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중앙병리연구소(陸軍中央病理研究所)에서 혈액 은행을 창설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1955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복귀하였고, 1958년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미네소타 대학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지내면서 미국식 해부학을 익혔으며,¹⁶ 같은 해에 대한체질인류학회(大韓體質人類學會)를 설립했다.¹⁷ 1969년에

15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을 비판한 박순영은 사회과학대 인류학과 소속의 체질 인류학자이다. 한국에서의 체질 인류학 분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경수, 『한국인류학 백년』(일지사, 1999) 참고. 사회과학 분과의 체질 인류학에 대한 정의와 대한체질인류학회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선주, 『생물 인류학』(개신, 2003); “대한체질인류학회 소개-인사말”, <http://www.kpaa.org>, (2015년 1월 26일 접속).

16 김옥주, 황상익, “The Minnesota Project: The Influence of American Medicine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Research in Post-War

한민족의 체질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연구들로 제2회 한국 과학기술상 대상(大賞)을 수상한 그는 1974년에 정년퇴임했고, 10년 후에 타계했다.¹⁸

나세진에게 1969년 수상을 안겨준 연구는 1964년 『한국문화사대계』에 출판된 “한국 민족의 체질 인류학적 연구”이다.¹⁹ 여기서 그의 한민족 기원론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 나세진은 풍속, 언어, 문화에 대한 탐구만으로 민족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은 어려우며, 체질 인류학적 연구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민족이 만주(滿洲)에서 유래했다는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단일 기원설(單一起源說)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체 한 민족의 형성 근원은 일원적(一元的)인 예는 드문 것으로 다원적(多元的)일 때가 많은 것이며”라며 “한국 민족도 단지 한 기원(起源)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며, 2 내지 3원적 기원을 생각함이 실제에 가까울 것이라 사고되는 바이다”라며 한민족이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의 결과라는 혼합 기원설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원설 논의를 뒤로하고, 한국인이 단일 민족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국인의 골격[頭蓋骨, 軀幹骨, 四肢骨], 연부[筋肉係, 腦, 血液型, 指紋], 생체 체질[身長, 頭部, 顔面], 체형-지능 관련 심성 지수(心性指數)에 대

표 1. 나세진의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1964)에서 사용된 자료

목 차	세 부 목 차	자 료
1. 한국인의 골격	I. 頭蓋骨 II. 軀幹骨 及 四肢骨	I. 島五郎, 1934 II. 淺谷正, 1933; 近藤盈, 1937
2. 한국인의 연부 인류학적 고찰	I. 筋肉係 II. 腦 III. 血液型 及 指紋	I. 久保武, 1915; 1917; 1919 II. 이명복, 1963 III. 佐藤武雄 等, 1935; 國房二三, 1937
3. 한국인의 생체 체질	I. 身長 II. 頭部 及 顔面 III. 心性指數	京城帝大 解剖學教室, 1931-1942
4. 한국인의 체형: 지능 및 심성 지수		Sheldon, 1954

Korea,” 『의사학』 9권 1호 (2000), 112-123쪽.

¹⁷ 나세진은 초대부터 9대까지 1958년부터 1967년까지 대한체질인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¹⁸ 백상호, “나세진”, 133 쪽.

¹⁹ 백상호는 그 이전의 연구들에서 찾지만 당시 신문 기사는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

한 계측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그가 사용했던 계측 자료들 대부분이 해방 전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에서 수집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사용한 자료는 두개골의 경우에는 시마(島五郎), 구간골은 아사타니(淺谷正), 상지골은 콘도(近藤), 근육은 구보(久保武), 연부 인류학과 심성 지수 계측에 활용한 혈액형은 사토(佐藤武雄), 지문은 구니후사(國房二三), 한국인의 생체 체질은 전부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이 수집했던 데이터였다(표 1).²⁰ 나세진은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중국인과 일본인과 같은 주변 민족들과 비교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우리 韓國民族이 이같이 많은 人類學的 特徵을 뚜렷이 保有하고 있고, 比較的 孤立 Mendel 集團의 人類圈을 構成하고 있다는 것은 奇蹟같은 감이 들며 巍然한 矜持를 느끼는 바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人은 世界人類 身長分布에서 中等大身長中 큰 便에 屬하며, 목이 比較的 가늘고 긴 便이며, 背側深層筋群의 發達이 卓越해서 恣勢가 바르고 고르며 下肢가 길어 身體各部의 比率上 配分이 歐美人에 比準해서 均衡잡힌 體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人의 머리는 短頭이며 세계에서 長徑이 짧은 특이한 短頭中心을 이루고 있고 高頭이다. 韓國人은 또한 高頭의 中心을 이루고 있음도 特徵인 것이다. 얼굴은 蒙古人種의 特徵인 廣顔이나 넓고 큰 것보다 長顔인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頭蓋腔容積도 큰 便이고, 腦重도 무거운 便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우리 韓國民族은 日本人의 重要起源, 特히 最良의 起源이 된 것도 事實이며, 實로 近畿, 山陽地方 日本人은 그 體質이나 모든 形質이 韓國人의 人類圈內에 包含되는 範圍內에 있는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²¹

究” 때문이라고 말한다. “2회 科學기술상 大統領賞 大賞 羅世振 박사(서울醫大 교수)와의 인터뷰”, 『경향신문』, 1969. 4. 19, 5면.

²⁰ 한국인의 골격 계측 자료 가운데 사지골의 일부인 하지골의 경우에만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보 타케시의 연구는 경성제대가 설립되기 이전 경성 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敎)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연부 인류학적 고찰에 사용된 혈액형과 지문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의 자료인데, 이것이 사용된 배경에 대해서는 5절에서 후술한다. 더불어 한국인의 생체 체질 부분과 한국인의 골격 부분은 나세진이 학위를 받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해부학교실의 1931년부터 1942년 사이에 출판된 다수의 논문들을 전거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체형-지능 및 심성 지수는 나세진이 새로이 추가한 부분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체질 인류학자인 쉘던(William Sheldon)의 *Atlas of Men* (1959)에 기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4, 5절에서 후술한다.

²¹ 羅世振,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 結言. 각 장에 꼭 수가 표기되지 않아 인용을 장별 제목으로 표기한다.

즉, 한민족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 및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근린 민족 특히 중국인, 몽고인, 일본인 등이 한국인의 체질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 상상이나 다를 바 없고 군(群)으로서의 체질 인류학상으로 수많은 특징을 유출할 수 있으며 각 계층치의 변이의 폭은 반드시 좁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통일 민족을 과시하는 상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체질적으로 독립적인 민족이라는 것이다.²² 더불어 나세진은 심성 지수나 생체 체질 연구에서 드러나듯 한민족이 지능, 심성, 체질 면에서 주변 민족들보다 월등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민족에서 우수한 형질을 이루고 있는 긴키(近畿) 지방 주민들의 원류라고 결론짓는다.

이 연구는 1960년대 당시 “한국 민족이 동양 민족 가운데 제일 우수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이자 “일본 민족의 체질적 우월성에 바탕을 둔 일제의 억지 식민지 논리를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설명되었다.²³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인(日人) 학설을 따르고 있는 체질 인류학자의 민족 기원”이라며 “식민 사관(植民史觀)의 독소가 지금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이해되기도 했다.²⁴ 같은 시기 북한의 체질 인류학자 장우진은 “조선 사람의 선조와 그 발생지를 외국하기 위하여 지난날 제국주의 어용학자들을 비롯한 부르주아 반동학자들은 형형색색의 망설을 꾸며놓았”으며 “조선 사람이 여기저기서 물려온 혼혈족”이라는 “일제 어용 인류학의 날조 증거”를 참이라고 주장하며 “잡끄대같은 소리를 쉼치고 있는” 연구로 나세진의 연구를 폄하였다.²⁵

1990년대 이후 비판적 고고학 연구 혹은 체질 인류학 연구를 시도한 인류학자들은 과거의 북한 체질 인류학자들과 같이 나세진의 연구가 제국 일본 체질 인류학의 반복이라는 시선을 견지했다. 배형일은 남한의 체질 인류학자 나세진의 혼합 기원설을 언급하며 그가 일선 동조론을 거부하고 반일(反日)의 입

²² 羅世振,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 序言.

²³ “2회 科學기술상 大統領賞 大賞 羅世振 박사(서울醫大 교수)와의 인터뷰”, 『경향신문』, 1969. 4. 19, 5면; “他界한 解剖學界원로 羅世振박사 日帝의 「식민적體質論」 극복한 執念의 一生”, 『동아일보』, 1984. 3. 27, 2면. 1964년 논문의 체질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비판한 유일한 일제 체질 인류학자는 경성의전 교수였던 구보 타케시임을 알 수 있다. 구보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일제 강점기 당시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연구자들 모두가 공유하던 일반화된 평이었다.

²⁴ “한민족문화 뿌리찾기 새바람”, 『경향신문』, 1980. 1. 28, 5면.

²⁵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1: 원시편』, 355-360쪽.

장을 취했지만,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인종주의(colonial racism) 패러다임의 주된 테제와 방법론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세진은 당시 남한에 팽배했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기에 만들어진 인종주의의 위계 분류를 민족주의 서사 내에서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대 체질 인류학자 박순영은 해방 후 남한의 체질 인류학이 “일제 강점기의 연구와 대개 같은 이론, 주제, 방법이란 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가장 큰 차이라면 논문의 제목이 ‘조선인의…’에서 ‘한국인의…’로 바뀐 것이라고나 할까”라고 평했다. 특히, 나세진의 이 연구를 두고 “한국인의 우수성을 주장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그의 저서는 일제 시기 이루어진 체질 인류학적 연구와 기본적인 가정이나, 연구 방법, 자료 해석 방법 면에서 대동소이한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으며, 여전히 ‘전 다윈주의적 과학(pre-Darwinian science)’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서술했다. 서구 체질 인류학은 1950년대에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포기하고 신다윈주의 종합을 수용한 인류 진화 생물학 혹은 다윈주의 과학으로 거듭남으로써 인종주의와 결별한 반면, “한국의 체질 인류학은 아직은 진화 과학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⁶

이 같은 견해는 1950년대 집단 유전학자 도브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 1900-1975)나 인류학자 던(Leslie Clarence Dunn, 1893-1974)처럼 집단 유전학이 인간 생물학적 다양성을 탐구하기 더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보았던 과학자들이 20세기 초의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답지한 체질 인류학은 ‘반진화론적’이라고 단언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다. 전통적인 인종 과학의 역사 연구들은 집단 유전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좇아왔다.²⁷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2차 대전 전후로 유형론적 인종 개념에서 유전학적이고 통계적인 집단(statistical population) 개념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시각이 문제적임을 지적해왔다.²⁸ 전후 체질 인류학이 인종주의와 결별하고 인류의 기원에만 관심을 갖는 다윈주의 과학으로 거듭났다는 서사는 미

²⁶ 박순영,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202, 207-209쪽.

²⁷ Nancy Stepan, *The Idea of Race in Science: Great Britain, 1800-1960* (London: McMillan Press, 1982); Elzar Barkan, *The Retreat of Scientific Racism: Changing Concepts of Race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Between the World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²⁸ Veronika Lipphardt, “Geographical Distribution Patterns of Various Genes’: Genetic Studies of Human Variation after 1945,”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47 (2014), pp. 50-61.

국 체질 인류학자들이 독일 나치의 인종 위생(Rassenhygiene)과 분리하기 위해 펼쳤던 정치적 언술과 관련되며, 비록 워시번(Sherwood Washburn, 1911- 2000)과 같은 일부 학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을 주도하긴 했지만 체질 인류학이란 분야는 종래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입장으로 파편화된 분절적인 분야였다.²⁹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연구를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단순히 ‘전 다윈주의 과학’으로 평가하고 간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이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첫째, 나세진은 해부학 교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미국화를 꾀했다. 공식 서울대 의과대학 기관사나 1960년대 서울대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회고들 모두 나세진이 학장 재임 시절 1958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한 미국 의대 경험 이후 해부학 교육의 일대 쇄신을 꾀했다는 데 동의한다. 비근한 예가 독일어와 일본어로 쓰여진 논문 저술과 일본어 자료를 갖고 이루어지던 해부학 교육을 영어와 미국 해부학 교과서 『그레이 해부학(*Grey's Anatomy*)』으로 완전히 대체했던 것이다.³⁰ 이렇게 미국 해부학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나세진이 체질 인류학에서만은 보수적으로 일본의 전통을 고수했다고 이해해야 할까?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질 인류학, 특히 미국 체질 인류학(다윈주의 과학)을 전쟁 이전의 인류학(전 다윈주의 과학 혹은 과학적 인종주의)과 구분하는 전통적인 역사적 서사를 따르고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을 전적으로 전 다윈주의적 과학으로 간주한다면 취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근거 없이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특히, 서울대 해부학교실 교수들이 체질 인류학을 해부학의 하위 분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세진이 미국 학문 가운데 해부학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체질 인류학에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³¹

다른 하나는 그의 이론적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의 연구가 일본 체질 인류학의 답습에 불과하다면 일선 동조론에 부합하던 데이터와 이론을 어떻게

²⁹ Perrin Selcer, “Beyond the Cephalic Index: Negotiating Politics to Produce UNESCO’s Scientific Statements on Race,” *Current Anthropology* 53:2 (2012), pp. 173-184.

³⁰ 서울대학교醫科大學史編纂委員會, 『서울대학교醫科大學史, 1885-1978』 (서울대학교, 1978), 113쪽;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42쪽.

³¹ 장신요, “한국의 체질 인류학에 대한 회고”, 『체질인류학회지』 1권 1호(1988), 1-4쪽.

한국인 단일 민족론 주장으로 바꾸었나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나세진의 지도 교수였던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우에다는 1934년의 체질 인류학적 계속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본 긴키 지방 사람들과 조선 중부인들 간의 체질 인류학적 근친성을 지적하며 일본인 혼합 기원설을 주창했고, 이는 일선 동조론에 동원되었다.³² 사카노가 지적하듯 우에다의 일본인 혼합 기원설은 한민족이 일본인의 조상이라는 위험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만몽(滿蒙) 지역 체질 인류학 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만주 지역에서 내려온 북방계와 일본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올라온 남방계의 혼혈이라는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만선사(滿鮮史)를 구축해 만주인-조선인-일본인 사이의 연속성을 구성해 놓은 상태였다.³³ 1939년 우에다는 조선 민족에 대한 논고에서 중부 조선인의 단두형 및 두개고형의 특징과 일본 민족 형성에 조선인이 끼쳤을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인이 주변 민족인 “Khalkha족(ハルハ族)”, “만주족(滿洲族)” 등의 “몽고계(蒙古系)”와 “통구스계(ツングース系)”와의 “놀랄만한 유사점(非常な類似點)”이 있음을 강조했다.³⁴ 이 연속선상에서 조선인은 만주인과 일본인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였지, 기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³⁵

나세진은 한국인이 북쪽의 만주 지역과 남쪽의 일본 긴키 지역 주민 양측과 관련이 있다는 우에다의 이론적 입장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론에 사용된 데이터도 모두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인 단일 민족론이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만약 그가 일제 체질 인류학의 내용을 답습했다고 평가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배

³² 사카노 토오루, 박호원 옮김,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1884-1952』 (민속원, 2013), 323-325쪽.

³³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324쪽. 혈청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 인류학”, 『의사학』 21권 3호 (2012), 543쪽.

³⁴ 上田常吉, “體勢から見た朝鮮人”, 白島庫吉 編, 『アジア問題講座 第八卷: 民族・歴史(二)篇』 (創元社, 1939), 148쪽.

³⁵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3강좌의 今村豊와 島五郎는 1930년대 후반부터 만몽 지역 민족에 대한 인체 계측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인, 조선인, 만몽 제 민족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경기 지방(중부) 조선인의 데이터는 만몽 제 민족과 일본인의 인체 계측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해석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今村豊, 島五郎, “蒙古族及び通古斯族の體質人類學的研究補遺”, 『大陸文化研究會報告』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1938), 23-78쪽.

형일은 이를 당대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발현으로 보았다.³⁶ 이는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의 글 곳곳에 그 흔적이 엿보이긴 하지만, 나세진이 스스로 “30년의 연구 끝에 내놓았다”고 자부한 결과를 오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³⁷

이 글은 나세진의 이력과 과학에서 돌출되는 특이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변부’ 과학자였던 그의 이력과 과학 연구들을 전전 제국 일본의 체질 인류학에서 전후 ‘국제’ 혹은 미국 체질 인류학이라는 ‘중심부’ 과학으로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킬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먼저 나세진의 연구에 영향을 끼쳤던 두 ‘중심부’ 과학의 내용과 쟁점들을 살펴보자.

3. 전전 제국 일본 과학의 유산 - 혼합 기원설, 지방차, 체질 유전

나세진이 체질 인류학을 배우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가 몸담았던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지적 유산들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것은 제국 일본 체질 인류학의 의제가 무엇이었는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카노 토오루(坂野徹)의 일본 인류학 연구는 제국 일본의 체질 인류학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이다. 그에 따르면 일본 제국에서 인류학은 20세기 초부터 일본 열도 주민의 기원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다이쇼(大正)기 이후 혼합 기원설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들이 전개되었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가 강조하듯이 당시 일본인 기원에 대한 주류 가설은 둘 혹은 세 가지 주변 민족이 일본 열도로 이주해 와 현대의 일본 민족을 탄생시켰다는 혼합 기원설이었다.³⁸ 1930년대부터 인류학이 자연 인류학(체질 인류학), 민족학(문화 인류학), 민속학이라는 세 분야로 분화되고 인류학이 ‘자연 과학화’ 되면서 체질 인류학이 인종 기원 연구 주류의 자리를 차지했다.³⁹ 일본인 혼합 기원론을 제창한 첫 인물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였으며, 그 뒤로 아오노 겐치(青野謙次, 1885-1955)는 아이누와 고

36 Pai, *Constructing “Korean” Origins*, pp. 256-257, 260-261.

37 “2회 科學기술상 大統領賞 大賞 羅世振 박사(서울醫大 교수)와의 인터뷰”, 『경향신문』, 1969. 4. 19, 5면.

38 오구마 에이지, 조현설 옮김, 『일본 단일 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특히 314-323, 417-422쪽.

39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381-386쪽.

유 일본인을 구별한 과거 연구자들을 비판하며 인골 데이터를 활용한 일본 인종 혼혈론을 전개했다.⁴⁰ 나세진의 지도 교수였던 우에다는 아오노와 같이 당시 일본 인류학자들의 ‘상식’인 혼합 기원론을 인체 계측 자료라는 ‘자연과학적 증거’를 활용해 검토하던 인물이었다.⁴¹ 이미 선교사 허버트(Homer Herbert, 1863-1949) 등이 조선 인종을 몽골계와 비몽골계 두 부류로 분할한 가운데 동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일본인의 혼합 기원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다시금 적용 가능한 가설이었다.⁴² 실제로 도리이는 1904년에 조선인 체질을 구라파적 체질(歐羅巴的體質, Le type Européen)과 몽고 종족적 체질(蒙古種族的體質, La type Mongole) 두 가지로 구별한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를 좇으며 조선인을 주변 민족들의 혼합 존재(混合存在)라고 말했다.⁴³ 이렇게 일본인 기원론을 굴절한 한국인 혼합 기원설은 적어도 당대 고고학과 역사학계에는 일반적인 학설로 자리 잡았다.⁴⁴

‘지방차’는 혼합 기원설을 중심으로 일본인 기원론을 탐색하는 가운데 일본 인류학이 발명한 가장 큰 특징적 개념 가운데 하나였다.⁴⁵ 이 역시 도리이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도리이는 1905년에 일본인 인체 계측을 앞서 진행했던 서구 학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벨츠(Erwin Von Baelz, 1849-1913)를 언급하며 그가 인체 계측 대상으로 삼은 학생들이 여러 지방에서 왔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면서, 히다(飛驒), 노토(能登) 지방 등의 지방민들 간 체질 차이를 비

40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213-214쪽.

41 우에다는 자신의 연구가 종래 당연한 사실로 여겨져 온 일본 민족 혼혈론을 체질 연구로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との體質比較”, 東京人類學會 編, 『日本民族』(岩波書店, 1936), 161-162쪽.

42 이기동, “기원연구의 흐름”, 『한국사시민강좌』 32집 (2003), 3-7쪽.

43 鳥居龍藏, “朝鮮人の體質”, 『東京人類學雜誌』 20 (1904), 42-49쪽. 그런데 이 논문은 도리이가 Ernest Chantre et Émile Bourdaret, *Les Coréens: Esquisse anthropologique* (Lyon: A. Rey, 1902)를 번역 및 소개한 내용인데, 배형일은 이를 도리이가 직접 현지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Pai, *Constructing “Korean” Origins*, pp. 39-40.

44 Pai, *Constructing “Korean” Origins*, pp. 97-126. 도리이에서 우에다로 이어지는 일본인-한국인 혼합 기원설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세키네 히데유키, “일본 자연인류학 패러다임의 변천: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관계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3집 (2005), 66-70쪽 참고. 그러나 세키네의 논의 가운데 우에다의 이론을 단순히 도리이의 이론을 “체질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이해하는 대목(69쪽)은 우에다가 도리이와 대립되는 코가네이-마쓰무라/아오노와 같은 체질 인류학 계보에 속한다는 점을 간과한 설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적해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준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5 지방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128-133쪽을 참고.

교했다.⁴⁶ 이 지방차 논의는 외형적으로 균질적으로 보이는 일본인 집단 내부에서 생물학적 차이를 발견하여 혼합되기 이전의 민족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이후 체질 인류학자들은 계속해서 지방적 차이에 근거한 일본인 기원론을 시도했다. 이 연구의 종결점은 도리이를 대신해 도쿄제대 인류학교실 교수 좌를 새로이 담당하고 체질 인류학을 인류학의 중심부로 이끈 마쓰무라 아키라(松村瞭, 1880-1936)였다. 그는 1925년까지 남자 6,000명과 여자 2,000명의 신장과 두형을 계측하고, 이들을 지방별로 분류하여 9 종류의 지방적 차이를 발견했다.⁴⁷ 그러나 도리이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계측이 이루어진 지역들이 이주 등이 성행한 곳으로 교통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농촌이나 벽지의 토착민들의 인체 계측이 아니므로 지방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⁴⁸

도쿄제대의 마쓰무라나 코가네이는 도리이의 비판을 무시하여 결국 그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이끌었다.⁴⁹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자들이 이러한 도리이의 불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조선인에 대한 체질 인류학 연구를 일본 지방차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했다. 앞서 언급했듯 우에다는 조선 중부인과 긴키 지방 일본인의 체질적 차이가 일본인 간 다른 지방적 차이보다 작음을 보이면서 조선인이 긴키 지방으로 내려와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는 혼합 기원설을 제창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1930-1934년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현지 조사들은 모두 지방차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동이 드물고 비교적 격리된 지역을 신중하게 택했다. 이는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일관된 지침이었는데, 예를 들어 나세진도 참여했던 1942년 경기도인 지방차에 대한 인체 계측 조사는 타지방민이 이주해 지방차가 없어진 대도시를 피하고 소도읍을 위주로 계측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⁵⁰ 사실 경성제대 체질 인류학

46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129쪽.

47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130-131쪽. 이후 마쓰무라의 연구는 지방차를 연구하는 일본인 기원론의 확고한 비교 데이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우에다는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조선인 인체 계측 자료를 마쓰무라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기원 관계를 탐구했다.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との體質比較”.

48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132쪽. 이 같은 도리이의 적절한 지방차에 대한 관념은 다윈주의 종합 이후의 집단(population) 개념과 어떠한 이론적 연관도 없었지만, ‘인종 혼합(race mixing)’이 없는 ‘고립(isolation)’ 집단이 해당 그룹을 잘 대표한다는 생각과 정확히 조응했다. Lipphardt, “Geographical Distribution,” pp. 55-57.

49 사카노 토오루,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323쪽.

자들이 구보 타케시 등 이전의 조선인 체질 연구자들보다 자신들의 연구가 뛰어나다고 자부한 것은 대도시의 중부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선행 연구자들과 달리 지방차를 고려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데 있었다.⁵¹

경성제대 의학부 해부학교실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던 중 사카노가 간과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에다가 ‘단두중심’이라는 대담한 가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⁵² 우에다는 지금까지 단두형 인종의 두 중심지로 알프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만이 언급되었지만, 두개고경(頭蓋高徑)을 고려해보면 이 두 지역은 두개정형(頭蓋整型)인 반면 조선인은 뚜렷한 두개고형(頭蓋高型)을 보이며, 2천만의 조선인이 이같은 고형의 단두형 인종이라는 구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가 중앙아시아와 구별되는 또 다른 단두중심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우에다가 조선 중부인과 일본 긴키 지방민 사이의 연관성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단두중심이었고, 우에다에게 긴키 지방민 두개골의 고두-단두형(高頭-短頭型)은 조선 중부인이 긴키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였다. 물론 그는 이 가설이 추후 만주 지역 민족 조사가 더해져야 확실해질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었다.⁵³

이와 더불어 사카노는 일본 체질 인류학의 중요한 유산인 혼합 기원설과 지방차 개념을 보여주었지만, 일본 인류학 내부만 살펴보았을 뿐 일본 체질 인류학자들이 교류한 ‘국제’ 과학 공동체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 체질 인류학의 최전선이었던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연구들과 그들의 연구는 문들의 순환을 살펴보면 일본 체질 인류학이 교류하던 ‘국제’ 과학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독일 체질 인류학과 영국 생체 계측학(biometrics)이다.⁵⁴

⁵⁰ 上田常吉, 鈴木清, 西木世振 等, “京畿道朝鮮人の體質人類學的研究”, 4쪽.

⁵¹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との體質比較”, 125, 136쪽.

⁵² 머리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두부지수(頭部指數, 頭指數, 頭長幅指數 혹은 頭蓋指數, cephalic index)라고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 장두(長頭, dolichocephalic), 중두(中頭, mesocephalic), 단두(短頭, brachycephalic)로 분류한다. 체질 인류학자들은 이 두부지수를 활용해 인종 집단을 분류해왔다. 단두중심은 단두형을 보이는 인종 집단을 지칭할 때 사용되며, 그 단두중심을 축으로 단두형 인종 집단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생각되었다.

⁵³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との體質比較”, 127-128, 130-131쪽. 만주 지역 제 민족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가 수행되고 난 후인 1939년에 출간한 글에서, 우에다는 조선인 단두중심론을 추진하면서도 몽고계와 퉁구스계 민족 및 조선인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上田常吉, “體勢から見た朝鮮人”.

해부학교실에 체질 인류학이 자리 잡는 것은 유럽 대륙, 특히 독일과 영국의 강한 전통이었으며, 일본에서 체질 인류학자로 활동한 많은 인물들이 영국과 독일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⁵⁵ 일본 자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우에다나 이마무라에게도 국제 학계는 독일이었는데, 그들이 작성한 ‘국제’ 논문들은 모두 독일어로 쓰였고, 인체 계측 및 연구 방법론의 표준으로 독일 뮌헨 대학 체질 인류학 교수 마르틴(Rudolf Martin, 1864-1925)의 『인류학 교과서(Lehrbuch der Anthropologie in Systematischer Darstellung)』를 사용했다.⁵⁶ 그리고 『인류학잡지(人類學雜誌)』와 『조선의학잡지(朝鮮醫學雜誌)』 등 ‘국내’ 학술지를 제외한 국외 주요 논문 투고처는 영국의 『바이오메트리카(Biometrika)』였으며, 『미국 체질 인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의 논문들은 매우 드물게 인용되었다. 한 예를 들자면 『바이오메트리카』의 동아시아 체질 인류학자들은 제국 일본의 첫 의학계 출신 체질 인류학자 코가네이(小金井良精, 1895-1944)의 1902년 중국인에 대한 두개골 계측 연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시아 인종 분류를 시도한 우딩량(吳定良, 1893-1969)과 머랜트(Geoffrey McKay Morant, 1899-1964)의 1933년 논문은 다시금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이마무라와 시마의 동북아시아 인종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분류 논문에서 주요 논거로 인용되었다.⁵⁷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우에다와 이마무라는 모두 영국 『바이오메트리카』와 독일 체질 인류학의 연구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에 찬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아시아 인종 분류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가 체질 유전에

⁵⁴ 김옥주,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 인류학 연구”, 201쪽.

⁵⁵ Robert Proctor, “From *Anthropologie* to *Rassenkunde* in the German Anthropological Tradition,” in George W. Stocking, Jr. ed., *Bones, Bodies, Behavior: Essays on Biological Anthropolog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pp. 140-142. 예를 들자면, 일본 체질 인류학의 기틀을 세운 동경제대 의학부의 小金井良精는 독일 베를린대학에서 해부학과 체질 인류학을 배우고 돌아왔다.

⁵⁶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との體質比較”, 115쪽. 우에다의 이 논문뿐만 아니라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에서 출판한 모든 논문은 생체 계측 단위 및 방법의 표준으로 마르틴의 교과서를 사용했다.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을 졸업한 松本清는 우에다 교실이 “마르틴 선생이 지은 인체 계측학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아(マルチン先生著, 人體計測學教科書を基準として)” 체질 인류학과 생체 계측이론 연구를 수행했다고 회고한다. 松本清, “上田解剖學記”,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紀念』(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41쪽.

⁵⁷ Ting-liang Woo and Geoffrey Morant, “A Preliminary Classification of Asiatic Races Based on Cranial Measurements,” *Biometrika* 24 (1932), pp. 108-134.

대한 통계학적 프로그램이었다. 1930년대 『바이오메트리카』의 중요 연구 중 하나는 피어슨(Karl Pearson, 1857-1936)의 제자 머랜트와 그와 협업하는 중화민국 체질 인류학자 우딩량의 아시아 인종 분류 연구들이었으며,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연구자들은 풍부한 동북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인체 계측 데이터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다. 한편 멘델의 유전 법칙을 수용한 체질 유전 연구는 독일의 체질 인류학 설립을 이끈 피셔(Eugen Fischer, 1874-1967)의 주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던 반면, 영국 생체 계측학의 대부 피어슨은 멘델 유전 법칙을 거부한 채 체질 유전에 대한 통계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우에다는 이들의 영향 속에서 체질 유전에 대한 생체 계측학적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⁵⁸

정리하자면 일본 체질 인류학, 그 가운데에서도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우에다의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은 지방차를 고려한 일본인 혼합 기원설 탐구에 매진해 조선 단독중심론과 조선 중부인-일본 긴키 지방인 동조(同祖)설 등을 제안했으며, 그러한 연구의 방법론은 독일 마르틴의 인체 계측법을 활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은 각 지방의 지방적 차이를 대변하면서 인구 유동성이 낮은 소도읍의 조선인들이었다. 이 연구 의제와 방법론, 그리고 이를 활용해 얻어진 1930년대의 자료들이 바로 나세진이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에서 학습하고 직접 참여해 만들어내던 것들이었다.

4. 전후 ‘국제’ 혹은 미국 체질 인류학계의 재편 - 멘델 집단, 혈청학, 심성 지수

그렇다면 제국 일본이 무너진 해방 이후 나세진이 대면한 새로운 체질 인류학 전통은 무엇이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그를 포함한 해방 후 지식인들에게 새

⁵⁸ 피셔를 비롯한 독일의 체질 인류학자들이 일찍부터 멘델 유전 법칙을 수용한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을 전개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aulin Mazumdar, “Two Models for Human Genetics: Blood Grouping and Psychiatry in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70:4 (1996), pp. 609-657. 다만 피어슨의 경우 그의 생체 계측학 프로그램이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의 멘델주의와 대립하며 멘델 법칙에 비판적이었다는 설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피어슨이 적극적으로 멘델 유전 법칙을 생체 계측학 프로그램 내에서 소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M. Eileen Magnello, “Karl Pearson’s Mathematization of Inheritance: From Ancestral Heredity to Mendelian Genetics (1895-1909),” *Annals of Science* 55:1 (1998), pp. 35-94.

로운 ‘국제’ 과학계는 미국 학계였다. 해방 후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유학생들 대부분은 유학지로 미국을 택했으며, 미국이 아닌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로 유학을 떠나는 것은 학술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것처럼 여겨졌다.⁵⁹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새로운 ‘국제’ 과학계로 떠올랐던 미국 체질 인류학계의 2차 대전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전후 미국 체질 인류학계는 위시번의 “새로운 체질 인류학(new physical anthropology)” 프로그램과 함께 개념적으로는 유형론적 인종 관념을 포기하고 통계적 집단(statistical population) 관념으로 전환하면서 인류의 기원 연구로, 방법론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형태학적 계측에서 영장류 연구나 고인골 계측으로, 나아가 1960년대 이후로는 단백질 분석 등의 분자학적 방법으로 이동했다고 이해된다.⁶⁰ 1950년 집단 유전학자 도브잔스키는 인종을 “유전 변이, 대립 유전자, 혹은 염색체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 종(species) 내의 멘델 집단(Mendelian population)”으로 정의했으며, 여기서 멘델 집단은 “공통의 유전자 풀을 공유하는 격리된 생식 공동체”를 뜻했다.⁶¹ 반인종주의 인류학자 몽태규(Ashley Montagu, 1905-1999)는 전통적인 유형론적 인종 개념 대신 도브잔스키의 집단 개념을 좇기를 선언했으며, 이에 기초한 체질 인류학 교과서를 저술했다.⁶² 위시번 역시 도브잔스키에 호응하면서 영장류 행동 연구를 통한 인류 기원 탐색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⁶³

59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348쪽.

60 Nancy Stepan, *The Idea of Race*; Rachel Caspari, “From Types to Populations: A Century of Race, Physical Anthropology, and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105:1 (2003), pp. 65-76.

61 Theodosius Dobzhansky, *Genetics and the Origin of Species* (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p. 405.

62 몽태규는 인종 개념을 포기하고 민족 집단(ethnic group)이란 용어를 사용하길 주장했으며, 이 민족 집단에 고립된 멘델 집단 개념을 부여하길 제안했다. 그러나 그가 통계적 집단 개념을 빌려온 도브잔스키는 인종의 개념을 생식적으로 격리된 멘델 집단으로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Ashley Montagu, *An Introduction to Physical Anthropology* (2n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51). 3판은 1960년에 출간되었으며 나세진은 3판을 인용하고 있다; Ashley Montagu, “The Concept of Race,” *American Anthropologist* 64:5 (1962), pp. 919-928.

63 Donna Haraway, “Remodelling the Human Way of Life: Sherwood Washburn and the New Physical Anthropology, 1950-1980,” in Stocking Jr. ed., *Bones, Bodies, Behavior*, pp. 206-260.

그러나 이 같은 인류의 기원을 체질 인류학의 핵심 주제로 선언하고 영장류학과 행동 진화에 초점을 맞춘 위시번의 “새로운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은 당시 미국 체질 인류학계가 나치 독일의 과학적 인종주의와 구별 짓기 위한 여러 전략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⁶⁴ 모든 체질 인류학자들이 도브잔스키의 멘델 집단이라는 유전학적 인종 개념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당시 체질 인류학계에 인종 개념을 두고 두 극단적인 견해가 존재했는데, 한 쪽에는 리빙스턴(Frank Livingston, 1928-2005)처럼 인간 집단은 오직 연속변이(cline)만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이주와 집단 간 교류가 존재했기에 생식적으로 격리된 집단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인종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인류학자들이 있었다.⁶⁵ 다른 한 쪽에서는 집단 유전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계적 집단 개념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고수하는 하버드 대학의 체질 인류학자 후튼(Ernest Hooton, 1887-1954)과 일부 제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고수하면서 혈액형을 비롯한 유전형을 활용한 인종 분류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들과 생식적으로 고립된 멘델 집단으로서의 인종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적인 인체 계측 연구를 선호하거나 혈액형과 같은 유전형과 혼합하여 탐구하려는 다수의 절충주의자들이 존재했다.⁶⁶

1950년 “인간의 기원과 진화(Origin and Evolution of Man)”를 주제로 이루어진 양적 연구에 관한 콜드스프링하버 심포지엄(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Symposium)에서 미국 체질 인류학계의 대부 후튼이 위시번에게 ‘집단(population)’이라는 단어 좀 그만 들을 수 없냐고 불평한 것은 유명하다.⁶⁷ 후튼을 위시한 하버드 대학의 체질 인류학자들은 인종 개념을 고수하고 이에 대한 형태학적 인체 계측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해왔다. 후

⁶⁴ Jonathan Marks, “The Two 20th-Century Crises of Racial Anthropology,” in Michael A. Little and Kenneth A. R. Kennedy eds., *Histories of American Physical Anthrop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Plymouth: Lexington Books, 2010), p. 196.

⁶⁵ Frank B. Livingston, “On the Nonexistence of Human Races,” in Ashley Montagu ed., *The Concept of Ra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pp. 46-60.

⁶⁶ Jenny Reardon, *Race to the Finish: Identity and Governance in an Age of Ge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 45-73.

⁶⁷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popul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이를 ‘개체군’으로 번역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는 한국생물과학협회, 『생물학용어집』(아카데미서적, 2005)의 용례대로 ‘집단’으로 번역했다.

튼의 경우 인종과 지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인종 차이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며 인체 계측 자료를 바탕으로 확고한 인종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후튼의 제자이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물관장이었던 쿤(Carleton Coon, 1904-1981)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때문에 애꿎은 과학적 인종 개념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 고 생각했다.⁶⁸ 쿤은 꾸준히 인종의 기원과 구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으며, 1962년에 그가 출판한 『인종의 기원(The Origin of Races)』을 두고 반인종주의 인류학자 몽태규 및 도브잔스키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⁶⁹

한편, 보스턴 의대의 혈청학자 보이드(William C. Boyd, 1903-1983)는 유허론적 인종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다만 이전 ‘해부학적 자료’ 혹은 연구 방법의 과학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체질 인류학의 문제는 인체 계측에 기초해 분류를 실시했던 데 있으며, 이를 유전적 형질인 혈액형으로 대체하면 더 적절한 인종 분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⁷⁰ 여기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전쟁 이전에만 하더라도 혈액형 연구는 체질 인류학자들의 주요 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혈액형 조사를 통한 인종 분류 연구는 체질 인류학계 바깥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체질 인류학자들은 혈액형을 사용해 인종을 분류하는 작업의 효용에 대해 의심했다.⁷¹ 보이드 스스로도

⁶⁸ Reardon, *Race to the Finish*, p. 42.

⁶⁹ 이 논쟁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John Jackson Jr., “In Ways Unacademical”: The Reception of Carleton S. Coon’s *The Origin of Races*,”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34:1 (2001), pp. 247-285.

⁷⁰ William C. Boyd, “Critique of Methods of Classifying Mankind,”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27:3 (1940), pp. 333-364; William C. Boyd, “Genetics and the Human Race,” *Science* 140 (1963), pp. 1057-1064.

⁷¹ Jonathan Marks, “The Legacy of Serological Studies in American Physical Anthropology,”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Life Sciences* 18 (1996), pp. 345-362. 인종 분류에 혈액형 집단 연구의 토대를 쌓은 독일의 힐슈펠트(Hirschfeld) 부부는 1919년 자신들의 혈액형 연구가 “해부학적 형질 유전에 관한 연구결과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들의 연구를 심화시킨 오펜버그(R. Ottenberg)는 1925년 “나의 연구 목적은 내가 답할 능력이 없는 인류학적 질문에 관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920년대 아메리카 인디언 혈액형 연구를 주도한 스나이더(Laurence Snyder) 역시 “혈액형 연구는 인종-분류의 부가적 기준으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뿐이지 체질 인류학 연구의 일부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체질 인류학자 후튼은 같은 시기(1931)에 “혈액형 분류 결과는 우리[체질 인류학자]가 인종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체질적 특징들과 거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인종 분류 연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혈액형 분석]은

1940년의 논문에서 체질 인류학자들이 혈청학 연구를 무시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⁷²

이처럼 미국 체질 인류학계는 매우 분절적이었는데, 인종 분류를 두고 주류 체질 인류학자들이 다투는 가운데 인종이라는 전통적 주제를 포기하고 인체 계측의 산업적 응용으로 관심을 돌린 연구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이 사이에서 체격의 유형(somatotype)과 기질(temperament)을 연결시켰던 셸던(William Sheldon, 1898-1977)의 심성 지수 논의와 관련한 연구들도 체질 인류학계 내에서 유행하였다. 흔히 사이비 심리학자이자 때로는 우생론자로 알려졌고, 그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분류는 스포츠 과학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1950년대에 셸던은 당시 위시번과 반대 극에 선 미국체질인류학회의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체질 인류학의 대부 후튼이 체질(constitution) 연구에 관심을 보였던 맥락 하에서, 미국 내의 체질 인류학계에는 이러한 체질주의자들(constitutionalists)이 상당수 존재했다. 이들은 위시번의 새로운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심리학자 및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⁷³

미네소타 대학은 이러한 응용 분야, 특히 심리와 체질 관계를 연구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였다. 일찍이 미네소타 의대 해부학과와 체질 인류학자들은 심리학자들과 함께 체질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1930년 『인간의 측정(The Measurement of Man)』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여기서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패터슨(Donald Patterson, 1892-1961)은 인격과 체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해부학과 교수 잭슨(Clarence

거의 가치가 없다”고 평했다. Jonathan Marks, *Human Biodiversity: Genes, Race, and History*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5), pp. 127-129.

⁷² Boyd, “Critique of Methods,” p. 360. 독일에서만 예외적으로 혈청학을 사용한 인간 집단 분류가 혈액형 인류학(Sero-Anthropologie)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인류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는데, 이는 독일에서는 1920년대에 형태 계측에 기초한 체질 인류학(Physischen Anthropologie)이 피서를 중심으로 인간 유전학, 유전 심리학과 혈액형 연구, 유전 병리학 및 인체 계측을 모두 포함한 인종 생물학(Anthropobiologie)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Proctor, “From *Anthropologie* to *Rassenkunde*,” pp. 152-156.

⁷³ 셸던의 작업의 기원과 함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Patricia Vertinsky, “Embodying Normalcy: Anthropometry and the Long Arm of William H. Sheldon’s Somatotyping Project,” *Journal of Sport History* 29 (2002), pp. 95-133.

Martin Jackson, 1875-1947)은 체질 유형에 따른 생리학적 차이에 대해 논했다.⁷⁴ 1944-1945년에는 미네소타 공중보건대학의 생리위생실험실(Laboratory of Physiological Hygiene)에 의해 칼로리 제한이 인간에게 끼치는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검토하는 ‘미네소타 기아 실험(The Minnesota Starvation Experiment)’이 진행되었고, 이 실험을 주도했던 심리학자이자 체질 인류학자 브로젝(Josef Brožek, 1914-2004)은 1959년 1월 미군 나틱 연구소(U. S. Army Natick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ies)에서 체질 인류학자들의 주도로 열린 신체 구성(body composition)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쉐던의 심성 지수를 포함해 체질과 신체 구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다.⁷⁵

정리하자면, 미국 체질 인류학이 위시번의 ‘새로운 체질 인류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다는 전통적인 이해와 달리 1950년대 미국 체질 인류학계는 매우 분절적인 상황이었다. 후튼을 위시한 인물들이 여전히 인종 분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유형론적 인종 분류 연구를 속개했고, 상당수의 체질 인류학자들이 고립된 멘델 집단이라는 도브잔스키의 새로운 유전학적 인종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인체 계측을 활용해서 인종을 정의하려는 절충주의적 입장을 택했다. 한편, 보이드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혈액형과 같은 유전형이 중요한 연구 자료의 지위를 획득했고, 쿤과 같은 이들은 이 혈액형 자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인체 계측 자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인종 분류에 대해 흥미를 잃은 일부 체질 인류학자들은 일찌감치 응용 부문에 관심을 돌렸는데, 그러한 응용 가운데 하나로 심리-체질 상관관계에 대한 쉐던 식의 연구가 성행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네소타 대학의 체질 인류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역시 심리-체질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것이 나세진을 비롯한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연구자들이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학계를 만나는 시점의 미국 체질 인류학의 지적 지형도였다.

⁷⁴ J. A. Harrison, C. M. Jackson, D. G. Paterson, and R. E. Scammon, *The Measurement of Man*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0).

⁷⁵ Michael A. Little, “Human Population Biology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Current Anthropology* 53:S5 (2012), pp. S126-S138 중 p. S130; Leonard G. Wilson, *Medical Revolution in Minnesota: A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Medical School* (St Paul: Midewiwin Press, 1989), pp. 406-412.

5.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이제 다시 나세진의 1964년 논문으로 돌아가 보자. 선행 연구자들이 비판한 바와 같이 일본 체질 인류학의 유산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나세진의 연구 논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속성의 측면을 보자면, 나세진은 해방 이후에도 일제 강점기에 체질 유전에 대한 연구를 속개했으며, 한민족이 2 내지 3원적 혼합 기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 도별로 지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한반도가 중앙아시아와 구별되는 단독중심이라고 진술하고 이러한 이론적 작업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경성제대 의학부 해부학교실의 인체 계측 자료를 인용했다(표 1). 나세진은 동시에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 연구와 독립적인 이론과 자료들도 사용하는 모습, 즉 불연속적인 측면 또한 보였다. 예를 들어, 그는 “4. 한국인의 체형-지능 및 심성 지수” 절에서 쉐든의 심성 지수 및 기질 연구를 활용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격 차이를 탐구하고, 서론과 결론부에서 한민족을 “고립된 멘델 집단”이자 “일본 및 근린 지역”과 구별되는 독립한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록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인체 계측 자료를 언급하고, 이전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 스승들과 달리 법의학교실의 혈청학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민족이 고립한 멘델 집단이자 단일 민족이라는 이론을

표 2. 나세진의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 (1964)의 일본 체질 인류학과와의 관계

	연속성	불연속성	비고
이론1	체질 유전	심성 지수	독립적 연구
이론2	지방차/ 혼합 기원설/ 단독중심	멘델 집단/ 단일 민족설	양측 이론 결합
자료1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인체 계측 자료	거의 사용 안함
자료2	경성제대 의학부 해부학 교실 인체 계측 자료	경성제대 의학부 법의학 교실 혈청학 자료	양측 자료 결합

뒷받침했다. 이처럼 나세진의 연구를 식민지 유제와 관련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측면들을 종류에 따라 구별하자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이론1/자료1과 이론2/자료2는 연구 간 분리 가능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이론1에서 일본 전통의 체질 유전과 미국 전통의 심성 지수 연구는 서로에게 별다른 영향 없이 독자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인 반면, 이론2에 해당하는 지방차/혼합 기원설과 멘델 집단/단일 민족설 논의는 나세진의 연구 속에서 이 네 가지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있다. 자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자료1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인체 계측 자료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다뤄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자료2에 해당하는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인체 계측 자료와 법의학교실의 혈청학 자료는 한국인의 체질에 대한 자료로 함께 긴밀하게 이용되었다.

이론1과 관련해서, 우리는 나세진이 일본과 미국 체질 인류학 양측에서 영향을 받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전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에다는 체질 유전에 대한 생체 계측학적 연구 프로그램을 주된 작업으로 삼았는데, 나세진 역시 해방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지속시켰다.⁷⁶ 반면 심성 지수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미국 체질 인류학계의 응용적 관심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쉐턴의 1959년 연구 *Atlas of Men*을 참고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미네소타 대학이 이 같은 심성-기질 연구의 메카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1958년 미네소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나세진이 이러한 부분을 추가시킨 점은 당연해 보인다.⁷⁷ 이것만

76 나세진의 연구 목록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醫科大學 解剖學敎室, 『逸齋 羅世振博士 華甲紀念論文集』(서울대학교 醫科大學 解剖學敎室, 1968) 참고.

77 나세진보다 일찍 미네소타 대학 연수를 다녀온 해부학교실 조교수 장신요는 연수 이후 개신 내용에서 “해부학 교육에 진전을 이뤘는데 특히 태생학(embryology)과 인간학(anthropology)—특히 인체의 생물 측정법(biometry of body structure)—분야임”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서울대 해부학교실 연구자들이 미네소타 연수에서 체질 인류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익혀왔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장신요는 연수 이후 미국체질인류학회(The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y)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91쪽. 장신요의 미국체질인류학회 활동 이력은 *The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의 1964년도 *The Yearbook of Physical Anthropology*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외에 나세진이 주로 참고한 미국 체질 인류학 서적 가운데 하나인 몽태규의 교과서 또한 비판적이지만 상당한 장을 할애해 쉐턴의 연구와 심성 지수 및 기질-체질 상관관계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는 몽태규의 교과서를 통해서도 쉐턴의 연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Montagu, *An Introduction to Physical Anthropology*, pp. 391-409.

으로도 나세진이 단순히 일본 체질 인류학 연구만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박하기에는 충분할지 모르나, 나세진의 프로그램이 ‘혼종적’임을 보여주진 않는다. 두 연구는 각자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론2의 부분이다. 이를 위해 한민족에 대한 나세진의 언급 가운데 한 구절을 다시 되새겨 보자. 그는 혈액형 연구에 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他國 特히 近隣民族과의 交易도 盛했으므로 混血이 많았을 것으로 想像되지만 比較的 前民族이 均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點에서 統一民族임을 誇示하고 있고, 民族的 體質特徵을 많이 保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血液型의 頻度에는 甚한 地方差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血液型에 對해서는 無選擇結婚일 것이므로 地方差가 있다는 것은 그 地方地方에 어느 程度 孤立한 Mendel 集團이 있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강조는 인용자)⁷⁸

여기서 우리는 지방차에 대한 그의 이해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지방차는 일본인 기원론의 주요 설명 도구 가운데 하나였고, 지방차를 적절히 반영한 인체 측정 자료의 수집은 체질 인류학적 일본인 기원 연구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나세진 역시 경기도민에 대한 지방차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동이 잦은 대도시가 아니라 격리된 소도읍에서 측정을 해야 자료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익혔다.⁷⁹ 뿐만 아니라 그는 인종기원론, 특히 아시아인 인종기원론을 체질 인류학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보았던 점에 있어서도 정성제대의 스승들을 그대로 따랐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조선인류학회에서 체질 인류학적 연구와 관련해 그가 발표한 내용은 “동아시아 인종의 기원”이었다.⁸⁰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수십 년을 기울여 만들어낸 역작은 이 1964년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논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이 “2 내지 3원적 기원”을 갖고 있을 것이란 그의 혼합 기원설은 정확히 우에다의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고 지방차에 대한 강조와 고려 또한 일본 체질 인류학의 전제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다만 한민족이 “고립한 멘델 집단”이자 “단일 민족”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⁷⁸ 오기나 맞춤법 오류를 고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다.

⁷⁹ 上田常吉, 鈴木清, 西木世振 等, “京畿道朝鮮人の體質人類學的研究”, 338-339, 342쪽.

⁸⁰ 전경수, 『한국인류학 백년』, 126-137쪽.

나세진은 미네소타 대학에 있을 당시 대학 내 해부학자 및 응용 체질 인류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학 바깥 체질 인류학자들을 만났었다. 그는 미네소타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펜실베이니아대학 박물관까지 찾아가 박물관 관장이자 저명한 체질 인류학자였던 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⁸¹ 비록 나세진이 얼마나 많은 체질 인류학자들을 접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미국 체질 인류학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세진은 1964년의 논문에서 미국 체질 인류학계의 두 극단적인 입장, 반인종주의자면서 유전적이고 통계적 집단 개념을 강조했던 몽태규의 저서와 강고한 인종 실재론자였던 후튼의 저서를 ‘균형’ 있게 인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⁸² 분절적인 1950년대 미국 체질 인류학계에서, 절충주의자들은 인종이 고립된 멘델 집단이라는 집단 유전학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유전학적 인종 범주 정의를 상당히 전통적인(유형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방법론적으로는 인체 계측과 같은 형태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혈액형과 같은 유전형적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나세진은 정확히 이러한 절충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 몽태규가 인용한 도브잔스키의 유전학적 인종 정의, “고립한 멘델 집단(isolated Mendelian population)”이 그의 한민족에 대한 정의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성제대 의학부 법의학고실의 혈액형 자료가 한민족의 독립성을 시사하는, 그의 한민족 기원론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나세진은 한민족이 “고립한 멘델 집단”이자 “단일 민족”이라는 정의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의 스승 우에다의 한국인 ‘단두중심’ 가설

81 1964년 원문에서는 “Pennsylvania 大博物館 館長 Dr. Koon”이라고 오기했으나 1968년 회갑 기념 논문집에서는 “Coon”으로 수정되었다.

82 나세진의 인종 분류에 대한 정의 및 혈액형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몽태규에 의해 쓰인 체질 인류학 교과서 5장에 주로 의거해서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 Montagu, *An Introduction to Physical Anthropology*, pp. 232-270. 한편, 몽태규는 몽골 인종에 대한 분류와 관련해 더 읽어볼만한 문헌으로 후튼의 인종에 관한 저서를 언급하면서 “인종 분류와 인종화(raciation)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전학적 견지를 지니지 않은 체질 인류학자들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Montagu, *An Introduction to Physical Anthropology*, p. 351. 후튼 역시 집단 유전학을 옹호하며 인종 대신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체질 인류학자들에게 혐오감을 보였으며, 몽태규가 콜롬비아 대학에 자리 잡기 위해 추천서를 부탁했을 때 문화인류학자인 그가 체질 인류학을 가르칠 역량이 있는지 “면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썼다. Marks, “The Legacy of Serological Studies,” p. 191.

을 수용했다. 다만 이 가설을 그것과 엮여있던 일선 동조론과 분리하여 한국인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국 체질 인류학의 계측 방법론들이 필요했다.

우에다는 한민족이 고두-단두형으로 중앙아시아 단두인종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단두중심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었고, 이는 조선인을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단일 민족임을 시사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제 3강좌의 이마무라와 시마 등은 동아시아 제 민족 혹은 만몽 민족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인을 만선사에서 주장하는 만주인과 일본인 사이의 조상을 연결 짓는 고리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작업에서 중요한 도구는 바로 몰리슨 편차표(Mollison偏差表, weichungstabelle)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르틴과 함께 독일 뮌헨 대학의 인류학과를 이끌었던 체질 인류학자 몰리슨(Theodor Mollison, 1874-1952)이 고안한 것으로, 한 기준과 대비하여 수 개의 계측군을 한 표 내에 동시에 나타낼 수 있게 해주었다.⁸³ 이는 기준 집단의 인체 계측 수치의 평균과 비교해 다른 집단들의 계측 수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각 인종 집단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시각화하는 도구로, 이마무라와 시마는 이를 활용하여 조선인과 만주인, 그리고 일본인의 연속성을 드러내려 시도했다.⁸⁴

나세진은 이렇게 종족 간 ‘유사성’을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을 기각하고, 대신 차이를 드러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많은 지표들을 사용했다. 그는 미국의 체질 인류학자 몽태규와 후튼의 두개골 계측 및 지수(指數) 항목들을 활용해 더 많은 ‘차이’들을 나타냈다. 일례로 그가 자료로 삼은 우에다(1936)와 이마무라 및 시마(1938)는 두개골 및 안면과 관련한 지수를 총 7항목을 사용한 반면, 나세진은 몽태규의 두개골 및 안면에 관한 지수(indices) 12 항목을 빌려와 검토해 일본인, 몽골인 및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더 많은 차이들을 강조했다(표 3).⁸⁵ 이 추가된 지표들을 사용해 그는 우에다가 조선인과 차별한 유사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던 “Khalkha족과 만주족을 포함한 몽고계와

83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 上田常吉, 『生物統計學』(岩波書店, 1935), 460-481쪽.

84 今村豊, 島五郎, “蒙古族及び通古斯族の體質人類學的研究補遺”, 66-77쪽의 “IV. 各族の比較” 항을 볼 것.

85 나세진은 우에다가 사용하던 마르틴의 독일식 해부학 용어 및 지수들 대신 Montagu, *An Introduction to Physical Anthropology*, pp. 455-456, 484-487의 지수들과 해부학적 정의들을 활용했다.

통구스계”와 한국인이 얼마나 다른지를 반복해서 지적했다.⁸⁶ 즉, 나세진은 조선인에 대한 경성제대 데이터들을 활용하던 선행 연구들이 민족 간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하던 재현 방법을 삭제하고, 미국 체질 인류학의 용어와 지수들로 재분석하여 주변 민족들과 한민족 간의 ‘차이’를 강조하며 우에다의 조선인 단두중심설을 한민족이 단일 민족임을 표시하는 강력한 증거로 채용했다. 일본의 ‘옛’ 유산을 한국인 단일 민족론을 지지하는 논거로 전유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전통을 활용했던 것이다.

표 3. 두개골 계측치와 두개 및 안면지수 사용을 중심으로 한 나세진 연구와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연구 비교

	우에다 (上田常吉, 1936)	이마무라 & 시마 (今村豊,島五郎, 1938)	나세진 (羅世振, 1964)
계측 항목 (지수 포함)	15 항목 (신장 및 상하지 포함)	20 항목 (신장 및 상하지 포함)	35항목
사용 지수 (높이/넓이*100)	7항목 (頭指數, (頭部)長高指數, 顔面指數, 上顔面指數, 頭長幅指數, 容倪顔面指數, 鼻高幅指數)	7항목 (頭長幅指數, 頭長耳高指數, 頭幅耳高指數, 頭長顴弓幅指數, 容倪顔面指數, 形態顔面指數, 鼻高幅指數)	12항목 (頭蓋長幅指數, 頭蓋長高指數, 頭蓋幅高指數, 橫前頭頭幅指數, 前中矢狀前頭指數, 後頭上鱗變曲指數, 全顔面指數, 上顔面指數, 鼻指數, 眼窩指數, 口蓋指數, 上顎齒槽指數)
시각화 방법	Mollison 偏差表	Mollison 偏差表	사용 안함
해부학 용어 출처	Martin (1928)	Martin (1928)	Montagu (1951;1960) Hooton (1946)

다음으로 자료 2 가운데에서도 혈액형 자료의 사용과 관련해서 전후 맥락을 검토해보면, 여기서도 단두중심과 같이 일본 유산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 인류학이 요구되는 상황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은 마

86 羅世振, “韓國民族的體質人類學的 研究”, 1. 韓國人의 骨格 - I. 頭蓋.

르틴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체질 인류학 연구 방법론의 토대로 삼았다. 나세진 역시 마르틴의 교과서를 통해 체질 인류학은 인체 계측을 통해 인종의 분류를 시도하는 학문이라는 정의를 배웠다. 마르틴은 체질 인류학의 연구 방법을 ‘형태적 계측’으로 경계 지었고,⁸⁷ 이 교과서를 연구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자료를 인체 계측 자료로 엄격히 한정시켰다. 우에다를 비롯한 어떠한 연구자들도 혈청학적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자료를 자신들의 체질 인류학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 경성제대 의학부 법의학교실의 사토 교수가 혈액형을 이용한 인종 기원 연구를 수행했으며, 혈청 수집 조사가 종종 해부학교실 체질 인류학 현지 조사와 함께 이루어지곤 했으나, 기본적으로 나세진과 같은 체질 인류학자가 다뤄야 할 것은 아니었다.⁸⁸

이는 사실 1950년대 이전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체질 인류학자들의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태도였다.⁸⁹ 혈청학적 자료는 인류학자가 아니라 생화학자나 혈청학자들이 다루는 것이었고, 이 자료들을 활용해 인종 기원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체질 인류학에서 주변부에 위치했다. 1950년대 이후에야 미국 체질 인류학계에서 집단 유전학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보이드와 같은 이들이 혈액형 연구를 체질 인류학의 중요한 도구로 삼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세진이 만났던 쿤과 같은 인물들은 이같은 흐름 속에서 혈액형 자료와 인체 계측 자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던 학자였다.⁹⁰ 나세진은 이렇게 혈청학 연구가 체질 인류학 자료로 포섭되는 미국 학계의 영향 하에서 혈액형 연구를 “인류학에서는 인류학적 상징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

⁸⁷ Proctor, “From *Anthropologie* to *Rassenkunde*,” p. 156.

⁸⁸ “軟部人類學은 最近에 發達 提唱된 人類學의 新部門으로 볼 수 있는 分野이며, 現今까지 人類學徒가 必要不可缺한 方法上의 典據로 하고 있는 R. Martin; “*Lehrbuch der Anthropologie*”(1928)에도 記術된 바 적으며 體系를 세웠다고 볼 수 없었다.” 羅世振,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의 研究”, 2. 韓國人의 軟部人類學의 考察. 나세진의 연구에서 혈액형은 연부 인류학의 부문으로 다뤄진다.

⁸⁹ 1930년대에 일본 인류학자들은 독일 인류학을 주요 ‘국제’ 학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생물학(Anthropobiologie)으로 단일화된 독일의 경우와 달리 단일 분과에서 자연인류학(체질 인류학), 민족학(문화인류학), 민속학으로의 분화를 겪었다.

⁹⁰ 쿤은 유전형 자료의 효용성의 한계를 문제 삼고 인체 계측 자료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체 계측 자료를 주로 삼고 혈액형 연구를 부분적인 도구로 활용하였다. Reardon, *Race to the Finish*, p. 188 n. 88.

하고 사실상 체질 인류학 바깥의 일제 유산이었던 법의학교실의 혈청학 자료를 활용했던 것이다.⁹¹

이제 남은 것은 자료1의 서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인체 계측 자료와 자료2의 경성제대의 인체 계측 자료인데, 이에 관한 논의 심화를 위해 다시 “지방지방에 어느 정도 고립한 멘델 집단”이라는 구절로 돌아와 보자. 사실 이 표현은 매우 어색한데, 지방차는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담지하고 있는 반면, 멘델 집단은 통계적 집단 개념을 담지 한 사실상 서로 공약 불가능한 어휘들이기 때문이다.⁹² 그런데 나세진은 서로 다른 개념적 함의를 갖고 있는 이 두 단어를 도대체 왜 함께 사용했던 것일까? 지방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의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한민족이 고립된 멘델 집단임을 주장하는 데 지방차 개념은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개념의 전제가 그가 1950년대 이후 새로이 획득한 서울대의 인체 계측 자료 대신 경성제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던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91 羅世振,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 2. 韓國人의 軟部人類學的 考察- II. 血液型部 ‘조선 외지’와 일본 ‘내지’에서 체질 인류학과 혈액형 인류학 연구가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이 나세진이 경성제대 법의학 교실의 혈액형 연구를 채택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본토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질 인류학과 혈액형 인류학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는 古畑種基가 혈청학 연구를 전통적으로 피부색과 인체 계측에 의거한 체질 인류학 및 사회 문화적 측면에 주목한 문화인류학과는 구별되는, “혈청학적 성질을 가지고 인종을 분류”하는 “신인류학”으로서의 “혈청학적 인류학”이라고 말한 데서 드러난다. 일본 본토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본 본토인의 인체 계측 데이터와 혈액형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혈액형 연구가 체질 인류학의 일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조선에서는 ‘지방차’를 강조하는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 연구와 법의학 교실 사토의 혈액형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때문에 해부학교실의 체질 인류학자들은 사토 법의학 교실과 긴밀한 연관을 맺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영향 외에도 나세진이 사토 법의학 교실의 혈액형 연구를 받아들일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지적해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준영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古畑種基, “血液型より見たる日本人”, 東京人類學會 編, 『日本民族』(岩波書店, 1936), 85쪽; 사토법의학교실과 해부학교실 체질 인류학자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언급은 小林宏志, “法醫學教室について”,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紀念』(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199쪽. 물론 경성제대 해부학교실과 법의학 교실 사이의 독특한 관계에 더해 나세진의 군 복무 경험 또한 그가 혈청학 자료를 사용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군 복무 당시 그는 국군중앙병리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어 혈액은행 창설과 관리를 맡았었다.

92 물론 당대 미국의 절충주의 체질 인류학자들도 유형론적인 방식으로 유전학적 인종 개념을 사용했다.

나세진은 1950년대 이후 후학을 양성하면서 수많은 인체 계측 데이터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서울대 해부학교실이 확보한 자료가 분단으로 인해 중부 지방의 것으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지방차가 ‘소멸’했기 때문이다. 그는 1920년대 도리이가 마쓰무라의 연구를 기각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해방 이후 연구들은 한국인의 독특한 체질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세진에게 해방 후 서울대에서 계측한 자료는 “교통 교류의 확산과 도간(道間) 잡혼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환경이 같아진” 결과 “도별차(道別差)”가 거의 없어져 사용될 수 없었고, 각 자료들이 지방 별로 분류한 인체 계측치는 “출신도별(出身道別)”이라는 것뿐이지 지방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반면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자료는 “타지방에서 이주해 온 이분자(異分子)가 가입(加入)됨을 피하기 위해서 일류 도시(一流都市)를 택하지 않고 그 곳에서 떨어진 군(郡)을 통해서 계측하였”던 것으로 지방차가 명백히 존재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통계적인 광범한 데이터”였다.⁹³

바꿔 말하면, 지방차 개념이 없이는 그가 한민족이 고립한 멘델 집단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성제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 반대 경우가 북한 연구자들이 경성제대 데이터를 기각한 이유에서 발견되는데, 북한의 체질 인류학자들은 한반도 내 주민들이 지방차 없이 단일하다고 생각했기에 해방 이후 북한에서 수집한 인체 계측 자료들이 경성제대 자료보다 훨씬 덜 조작되고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지방차는 한반도 주민과 일본인 사이의 조상 관계를 엮어내기 위해 어용학자들이 만들어낸 편향된 가설이었다.⁹⁴ 이렇게 지방차라는 경성제대의 유산이 경성제대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체질 인류학의 고립된 멘델 집단이라는 정의를 한민족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나세진의 한민족에 대한 체질 인류학 연구는 단순히 일제 강점기 체질 인류학의 반복이 아니라 지방차-혼합 기원설-멘델 집단-혈청학-단두중심

93 이 때문에 나세진은 이후 연구 과제를 “交通手段이 좋지 않은 地域을 찾아 즉 유전적으로 체질이 섞이지 않은 곳을 더 조사하여 한국인의 起源을 찾을 계획”으로 삼았다. “科學技術 大統領賞 授 나세진 박사 ‘韓國人 IQ 世界 五위’”, 『동아일보』, 1969. 4. 22, 6면. 이 때문에 그는 남방 기원설 탐구를 목적으로 1970년에 제주도 “土着民”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94 장우진, 림영규, 『조선 사람의 기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과 같은 다종다양한 측면들이 분리 불가능하게 얹혀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일본 체질 인류학의 지방차와 혼합 기원설의 단두중심론은 고립한 멘델 집단이라는 미국 체질 인류학의 유전학적 인종 개념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이었으며, 일선 동조론과 긴밀히 연결되던 한국인 단두중심론은 미국 체질 인류학자 몽태규의 분류법에 의해 한국인 단일 민족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로 탈바꿈했다.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유산인 조선인 혈액형 연구는 혈청학과 같은 유전형 자료를 체질 인류학의 온당한 일부로 포함하는 미국 체질 인류학의 영향 하에서 사용 가능해졌고, 그가 고수하고 있던 일본 체질 인류학 기원설 논의의 금과옥조인 지방차 관념은 한국인이 고립한 멘델 집단을 보여주는 경성제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논리였다.

그에 따르면 한민족의 기원은 둘에서 셋에 해당되는 주변 민족의 혼혈이었으나, 잡혼의 금지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들로 생물학적으로 고립되고 단일한 멘델 집단을 이루었다. 나세진 자신의 연구 또한 이렇게 전전 일본 체질 인류학과 전후 미국 체질 인류학을 그가 살던 1950-1960년대 당시의 민족주의적 감수성에 맞게 혼합함으로써 각 요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할 수 없는 혼종적인 체질 인류학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6. 결론

이 글은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연구가 단순히 일제 강점기 유산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여, 그의 연구가 사실 두 ‘중심부’ 과학의 논의를 밀전으로 독특한 혼합적 한민족 기원론을 만들어낸 것임을 보였다.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담지한 ‘전 다원주의적 과학’과 통계적 멘델 집단 개념으로 전환한 ‘다원주의 과학’이라는 박순영의 구별을 따르자면, ‘지방차에 따라 형성된 고립한 멘델 집단’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나세진은 이 두 과학을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엮어냈던 것이다.⁹⁵

95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 그것이 지니는 ‘과학성’의 문제는 별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주의적 관점을 통해 과거 과학 활동을 살펴볼 경우 나세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던 상당수의 절충주의적 체질 인류학자들의 연구들 또한 ‘비과학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비과학의 구도에 따라 나세진의 연구를 재단할 경우 1950년대 이후 서구 체질 인류학이 ‘비과학적인’ 전다원주의 과학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물론 나세진의 이 ‘혼종적’ 체질 인류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체질 인류학의 유산에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세진이 해방을 맞던 때 그는 박사 학위를 받고 활동한지 이미 3년이 지난 상황이었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으로 연수를 가던 시점에는 40대 후반의 중견 연구자였다. 나세진이 아무리 미국식 체질 인류학을 수용하고 소화하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해도, 20년이 넘게 연구하여 고착된 자신의 연구 아젠다와 방법론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강조하는 바는 나세진이 일제 체질 인류학의 프로그램인 민족 기원론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의 일부인 한민족 기원론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미국 체질 인류학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과거 ‘보편적’ 과학이었던 일제 체질 인류학이 나치의 과학적 인종주의와 묶여 유형론적 인종 개념을 지지하는 뒤떨어진 과학으로 부정 받는 상황에서, ‘주변부’ 과학자인 나세진은 자신의 연구를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이 ‘보편 과학’으로 인정되는 미국 ‘중심부’ 과학의 내용들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틀로 보았을 때 완전히 뒤떨어지지 않는 논의들로 채워야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단순히 정당화를 위한 ‘과학적 외피’ 씌우기 작업이 아니라 일선 동조론에 조응하는 일제 강점기 연구들을 단일 민족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점들은 나세진의 연구의 기본적인 토대가 어디에 있든 간에 연구의 혼종성이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나세진의 연구가 오직 과학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당대 박정희 정권이 민족주의 창출을 요청하며 고고학과 문화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들을 ‘민족 문화’ 형성에 동원시키는 상황에서, 나세진은 두 ‘중심부’ 과학의 논의들을 민족주의적 수사들과 민족 문화에 대한 역사적 언술들을 적절히 꿰매어 ‘과학적’인 한민족 단일기원론을 성취해냈다.⁹⁶ ‘한

다윈주의 과학으로 거듭났다는 박순영의 기본 전제와 달리 1950년대 서구(미국) 체질 인류학의 연구자 상당수가 ‘비과학적’으로 남아있었다. 오래 전부터 과학사회학 연구들은 보다 정직한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자가 현재주의적 관점에서 ‘과학’과 ‘비과학’에 대한 구별을 내리기보다 그러한 구분을 행위자들이 경계 작업(boundary work)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지적이다. Thomas F. Gieryn, “Boundary-Work and the Demarcation of Science from Non-Science: Strains and Interests in Professional Ideologies of Scientis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6 (1983), pp. 781-795.

⁹⁶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권 (1998), 121

민족이 동양 민족에서 제일 우수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나세진의 연구는 그를 제 2회 과학기술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이끌었고, 그의 연구가 담고 있는 일제 강점기 지적 유산의 색채를 성공적으로 지워냈다. 이러한 점에서 나세진의 정치적 언술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화학자 이태규가 해방 전 식민 과학에 복무한 경력을 지우기 위해 수행한 활동들과 담론들에 대해 분석한 디모이아의 연구나 임학자 현신규의 임학 프로그램을 박정희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한 선유정의 연구들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 함의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추후 연구 과제로 미루어두고자 한다.⁹⁷

김근배는 최근에 축적된 현대 한국 과학사 연구들을 바탕으로 1960년대를 KIST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과학 중심지가 형성되고, 일본 제도 하에서 교육받던 과학자들 대신 미국 유학을 다녀온 새로운 과학자 세대가 한국 과학계를 이끌게 된 한국형 국가 과학기술 체계가 확립된 시기로 본다.⁹⁸ 필자 역시 이와 같은 그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김근배의 그림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1960년대 중반까지 일본식 과학과 연결된 옛 과학자 세대들 또한 '중심부' 과학이 미국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과학계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중심부' 과학이 전환되는 시기에 이들이 과거의 '중심부' 과학에서 배운 지식과 새로이 등장한 '중심부' 과학 지식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전자의 지식과 관련된 친일이라는 이력을 어떻게 떼어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은 여전히 제기될만한 중요한 역사적 질문이다.

이는 사실 과학사 내부에서만 유효한 질문이 아니다. 최근 과학사 바깥에서 해방 전후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지식 형성에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끼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의 결과로 연구 대상의 활동 가운데 '과학적' 측면은 평가 절하 되고 연구자의 초점에서 제외된다. 이는 나세진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배형일은 그를 민족주의자로 규정하고 그가 민족주의 프레임 내에서 일제 체질 인류학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박순영 역시 나세진

-152쪽.

97 DiMoia, "Transnational Scientific Networks"; 선유정, "과학공간에서 정치공간으로: 은수원사시나무 개발과 보급",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2호 (2009), 437-474쪽.

98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김근배, "식민지 과학기술을 넘어서: 근대 과학기술의 한국적 진화", 『한국근현대사연구』 58호 (2011), 252-283쪽.

의 체질 인류학 연구를 민족주의적 사학의 관심에서 출발한 것으로 단정하고, 한국에서의 한국인 기원 연구는 그 이후로 20세기 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했다.⁹⁹ 이 구도 하에서는 나세진이 해방 이전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일본 체질 인류학을 교육 받고 해방 이후 미국식 체질 인류학을 수용했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중심부’ 과학을 만났던 학자였으며, 그가 ‘국제’ 학계에 조응해야 하는 ‘주변부’ 과학자로서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와 같은 흥미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기 어려워진다. 필자는 1960년대 활동한 한국의 구세대 과학자들 가운데 나세진과 같은 혼종적 프로그램을 전개한 과학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지적 활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일제 유산의 반복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벗어나 과학적 내용 그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과학적 내용에 대한 탐구는 한국 근현대 지식인들과 그들의 지적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한국학의 중요한 주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 2015년 3월 23일, 심사 및 게재 확정: 2015년 4월 14일)

⁹⁹ 다음에 실린 세키네의 박순영에 대한 인터뷰를 참고. 세키네 히데유키,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통 관계에 대한 한국 학계의 인식”,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7), 452쪽.

Sejin Rha's Hybrid Physical Anthropology Between Two "Metropolitan" Sciences, 1932–1964

HYUN Jaeh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cent critical studies of the history of physical anthropology view Sejin Rha's (1908–1984) research on Korean populations (*hanminjok*) after World War II as a continuation of prewar Japanese colonial science. Taking into account the so-called revolution of physical anthropolog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these studies have maintained that Rha's research program only repeated traditional Japanese colonial anthropology without engaging the new revolutionary development in the field. This article challenges current understandings of Rha's studies of Korean populations, chiefly his article in 1964, by considering his peripheral position between two metropolitan sciences: prewar Japanese colonial science and postwar US international science. By tracing the changing scientific contexts during the 1930s–1960s to which Rha belonged, this article argues that Rha produced a hybrid physical anthropology program. In particular, he sought to identify Korean populations as those of a biologically unitary nation (*danil minjok*). To do this, he selectively amalgamated theories, methodologies, and data from both the traditional Japanese colonial anthropology and the seemingly new US physical anthropology into his research program. This case study off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physical anthropology as a way to consider the so-called scientific dimensions of Korean scientists such as Rha who received Japanese colonial education. By situating a Korean scientist between two intellectual tradition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scholarship of the history of science in postcolonial Korea.

Keywords. Sejin Rha, physical anthropology, Korean population (*hanminjok*), postcolonial Korea, center and periphery